



아름다운 섬 남해(南海)

강 욱
자유기고가

남해군(南海郡)은 경상남도 남서단에 위치한 68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군이다. 동쪽은 통영시, 서쪽은 전라남도 광양시와 여수시, 남쪽은 남해, 북쪽은 하동군과 사천시 등과 접해있다. 소백산맥 줄기가 남해안까지 뻗어 이어진 섬으로 1968년에 한려수도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73년에 약 5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동양 최대의 현수교인 남해대교가 개통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남해도는 섬 전체가 천혜의 경관을 이루는 '소금강 38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굴곡이 심한 302km의 해안선은 어느 곳이나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으며, 토질이 비옥하고 주변 바다가 맑아서 해산물이 풍부하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살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군내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과 조개 무덤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예부터 남해는 '삼자·삼무(三子·三無)'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삼자'란 유자·치자·비자를 말하는데 이 지역은 아열대성 식물인 유자·치자·비자나무가 잘 자라 그 열매를 모두 궁중에 진상해 왔던 것으로 유명한 데서 연유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마늘이 전국적으로 더 유명하다.

'삼무'는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으며, 대문이 없다는 말이다. 남해 사람들은 예로부터 서로 상부상조함으로 도둑이 없고, 근면성실함으로 거지가 없고, 도둑과 거지가 없다보니 대문이 필요 없는 건강한 고장이어서 오늘날에도 남해사람은 근면·성실·정직하고 인정이 많다고 정평이 나 있다.

남해군의 여러 경치 좋은 곳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에게 널리 손꼽히는 곳이 이 동면에 있는 높이가 681m인 금산이다. 금산은 예로부터 ‘남해 소금강 38경’이라고 불렸을 만큼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옛 이름이 보광산인데 그것은 신라 때의 중 원효가 이 산에 보광사라는 절을 지었기 때문에 생겼던 이름이다.

그러다가 금산이 오늘날의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와 관계된 이야기가 얽혀 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이 산에 들어와 임금이 되게 해 달라고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임금을 시켜 주면 이 산을 비단으로 둘러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지 그는 뜻대로 임금이 되었으나 약속을 지키자니 막상 산 전체를 두루 만큼의 많은 비단을 구할 수 없어 고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에 한 중이 내놓은 묘안으로 그 걱정이 해결되었는데, 곧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산 정상에는 보리암이 있어 목탁 소리가 산행하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 준다. 금산에서 일출 광경을 보면 천지신명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금산은 그 자체도 아름다운 산이려니와 주변의 경치 또한 탄복할 만큼 빼어나다. 산 정상에 있는 보리암은 용문사, 화방사와 함께 남해의 3대 사찰이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자태로 잡고 있어 금산의 온갖 기이한 암석과 푸르른 남해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경내에는 신라의 명승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좌선대 바위가 눈길을 끈다. 그리고 부근에 있는 쌍홍문이라는 두 개의 바위굴은 금산 38경 중 으뜸으로 친다. 보리암은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 경기 강화도 보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기도처로 신도들이 연일 줄을 잇고 있다.

보리암과 쌍홍문을 중심으로 하여 수없이 흩어진 갖가지 형용의 바위와 굴 곧 천구암, 이 태조 기단, 가사굴, 만장대, 용굴, 삼사 기단, 사자암, 상사암, 팔선대, 흔들바위, 형리암, 대장암 따위가 저마다 그럴싸한 사연 하나씩을 간직하고 있어 재미있으며, 그 바위를 두루 거쳐 산마루에 올라 봉화독 터에서 아름다운 한려수도들 그윽이 내려다보는 맛도 유별나다. 게다가 보리암은 신라 때에 중 원효가 지은 암자로서 치성을 드리면 효험이 좋은 절로 꼽혀 소망 많은 아낙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금산의 동북쪽 산자락이 뻗어나가 발을 담근 바다가 바로 상주 해수욕장이다. 상주 해수욕장은 병풍처럼 둘러 쳐진 방풍림 앞으로 곱디고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 미역을 감기에 펴 좋은 해수욕장으로 꼽힌다. 게다가 귀에 얽혀 있는 금산까지 함

께 즐길 수가 있어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줄잡아 80만 명에 이른다.

남해도에는 남해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글자가 남아 있다. 금산 부소암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가로 7m, 세로 4m의 평평한 바위 위에 고문자가 여럿 새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다. 아직 정확한 해독을 하지 못해 그 뜻은 잘 모른다. 그러나 이 근처에는 이와 비슷한 문자 바위가 여럿 있다. 이들을 종합해 해석한다면 남해로 전래된 문화를 규명하는데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 문자들은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던 시종 서불이 500여 명을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렀다가 자기들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각인한 것이라 전한다.

아름다운 섬 남해에는 이 충무공의 발자취가 뚜렷이 남아 있다. 충렬사는 노량해전의 치열했던 전투가 떠오르고, 노량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노량마을 해안 언덕배기 울창한 숲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록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으로 이 충무공이 관음포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고 아산으로 운구 전에 3개월간 이곳에 안치되었다.

충무공의 순국을 슬프게 느끼던 남해사람 김여빈과 고승후가 이 충무공이 순국한지 35년이 지난 1633년에 초가집 한 칸

을 사당으로 건립하고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자 남해현령 이정건이 사당 앞에 충민공비를 세웠다.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지 45년 후인 1643년에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 후 1658년, 어사 민정중이 통제사 정익에게 사당을 신축하도록 해서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사당 앞에 있는 ‘유명조선국삼도통제사 증시충무이공 묘비’는 1660년에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성 송시열이 글을 짓고 정현대부 의정부 좌참찬 송준길이 쓴 것이다. 현종 때에는 임금이 직접 쓴 충렬사 현판이 하사 되었다. 이렇게 조정에서는 이곳 남해 충렬사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인정하였고, 충무공은 이 해에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세월은 흘러 순국 195년이 지난 후인 1793년에 이곳에 충무공비를 세우고 충민공비를 땅속에 묻었다. 남해 충렬사는 그 뒤에도 계속 성역화사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주면 양아리 앞 앵강바다에 샷갯처럼 두둥실 떠 있는 노도는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한 시대를 울리던 문사, 정객들이 통한의 눈물을 뿌리다가 더러는 불귀의 고향이 되기도 한 유배지이다. 조선 조 숙종 때 정치가요 문인으로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 국문학사에 빛나는 걸작을 남긴 서포 김만중이 유배 와서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기도 한다. 《사씨남정기》는 이곳에서 집필한 것으로 전해지나 《구운몽》의 집필지에 대해서는 설이 구구하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의 정으로 글을 썼던 땅, 흔히 유배 문학의 현장이라 일컫는 남해 노도에는 김만중이 살았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집터는 언덕 위 동백나무 사이에 있는 두세 평뿐이었고 집도 움막이었던 듯 흔적만 남아 있다. 그의 소설은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그의 자취는 이렇게 초라하다. 집터 옆에 있는 샘터는 서포가 손수 뚫었다고 전해지며 아직까지 맑은 물이 고인다.

집터를 지나 위쪽으로 150m쯤 떨어진 산중턱에 그의 무덤 터가 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죄책감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죽은 뒤 묻혔다는 곳이다. 지금은 봉분도 없고 그냥 평퍼짐한 땅이다. 주변에는 그의 한이 배어 있는 탓인지 동백나무, 소나무 등이 우거졌으나, 무덤 자리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원래 이 섬은 그 모양대로 삿갓섬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섬에는 노를 많이 만들어 노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남해군의 특산물로는 치자와 유자 그리고 비자를 꼽는다. 이 셋을 가리켜 남해 ‘삼자’라고 하는데, 거지와 글 소경과 도둑이 없다는 뜻의 ‘삼무’와 합쳐서 남해군을

흔히 ‘삼자 삼무’의 고장이라고 한다.

치자나무는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 푸른 떨기나무로서 7월에 크고 흰 꽃이 하나씩 가지 끝마다에 피고 열매는 길고 둥글며 익으면 주홍색을 띤다. 그 꽃은 향기가 매우 짙고 아름다워 이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있는 남쪽 지방에서 정원수로 아낌을 받았으며, 열매는 예로부터 물감으로 또 오줌을 자주 나오게 하는 이뇨제로 쓰였다.

“유자는 엮어도 손님상에 오르고 탕자는 고와도 똥밭에 구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유자는 비록 거죽이 우툴두툴하고 맛이 시고 쓰나 그 노랑 빛이 어디에나 견줄 수 없을 만큼 고을 뿐만이 아니라 향기가 빼어나 예로부터 귀한 과실 대접을 받아왔다. 유자가 열리는 유자나무는 운향과에 딸린 늘 푸른 큰키나무로서 감귤나무와는 달리 좀 쌀쌀한 지방에서도 곧잘 자란다. 그러나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남해안에서만 자란다. 특히 남해도에서 자란 유자는 맛과 향기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충제가 없던 시절에 그 열매를 민가에서 구충제로 널리 썼던 비자나무는 비자나무과에 딸린 늘 푸른 바늘잎 큰키나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의 여러 섬과 해안지방의 산지에서 자란다. 암수 딴 그루인 이 나무는 주로 산에서 자라며 4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비자 열매가 붉은 자주색으로 익는다. 비자는 맛이 몹시 떫은데 구충제로 쓸 뿐만 아니라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며 그 기름으로 불을 켜기도 한다. 그리고 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바둑판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남해도의 산에서 자라는 비자나무에서 한 해에 따내는 비자는 2t 쯤 이다.

이 남해 삼자가 언제부터 이 섬에서 자라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길은 없다. 다만 통일 신라 문성왕 2년에 장군 장 보고가

배를 타고 중국을 다녀오다가 설천면 바닷가에서 터진 유자를 버렸는데 그 씨가 흩어져 싹이 터서 남해 유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섬에 전해 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유자나무는 오래 전부터 자랐음을 알 수가 있다. 유자나무는 설천면 문항리와 문의리 그리고 창선면 지족리에서 많이 자란다. 치자나무는 남면 임포리에 많이 있으며 비자나무는 미조면 난음리 비자당 근처에 숲을 이루고 있다. 🍷

